

「삼관여록(三官餘錄)」에 나타난 가람 이병기의 학문과 인생관

이경애(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겸손한 학문의 자세와 삶이 놓이는 자리 |
| 2. 「삼관여록(三官餘錄)」의 구성과 내용 | 5. 맺음말 |
| 3. 고증학적 실증주의 연구 방법과 독창적 이론 | |

1. 머리말

해방 후 임시정부의 군정청 편수관의 일을 맡았던 가람은 1946년부터 서울 대학교에서 국문학 강의를 하였으나 1950년 6·25 전쟁의 와중에 고난을 겪고 서울을 떠나 여산으로 귀향하였다. 그러던 중 가람은 전북대학교의 전신인 전주명륜대학(全州明倫大學)에 초빙되고, 1951년 당시 전북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에서 국문학사와 개론을 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문학개설학을 개강하고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가람은 전북대학교에서 발간한 신문에 「삼관여록(三官餘錄)」¹⁾이라는 제목으로 수필과 잡록 16편을 연재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 기간에 『국문

1) 이병기, 「삼관여록(三官餘錄)」, 『전북대학교보』, 1954. 2. 16.-1956. 4. 30.

학개설』(1951), 『국문학전사』(1957), 『시조와 창작론』(1957), 『시조의 개설과 창작』(1957), 『국문학개론』(1961) 등 그의 국문학을 정리하고 종합한 주요 저술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주요 학문적 저술과 병행하면서 쓴 수필과 잡고 16편의 『삼관여록(三官餘錄)』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학문적 생활과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말년의 가람의 학문과 사색의 틀을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람은 『삼관여록(三官餘錄)』에 7편의 수필과 9편의 잡고 총 16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의 사색이 담긴 수필은 「백련」, 「풍란(風蘭)」, 「춧불」, 「오공증」, 「덕진호반(德津湖畔)」, 「구·울·우·송(龜·栗·牛·松)의 교분(交分)」, 「난초(蘭草)」 7편이다. 또 『삼관여록(三官餘錄)』(1954. 2.16), 「속단(速斷)」, 「서동동요(薯童童謠)와 설화(說話)」, 「정석가(鄭石歌)」, 「전원의 노래」 5편은 고전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이 들어있으며, 「미(美)와 현실(現實)」, 「극가(劇歌)와 소설(小說)」, 「한자 음독漢字 音讀)」, 「시조(時調)의 연작문제(連作問題)」 4편의 글은 국문학의 이론과 주장을 펼친 글이 실려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가람문선』(신구문화사, 1966)에도 실려 있어²⁾ 잘 알려져 있으나, 『삼관여록(三官餘錄)』 연재 글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람의 저술은 1920년 대 초부터 주로 잡지와 신문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었다. 그는 시가, 시조, 수필, 기행, 조선어 연구, 시조론, 세대비평 등 횡수나 분량으로도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발표했다. 그는 다양한 발표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그의 인지도나 영향력도 대단히 컸다.

그에 비해 단행본 저술은 『가람시조집』(문장사, 1939)이 나온 뒤, 번역이나 선집, 교주 및 주해 등의 저서로 1940년대 후반에 나온 것들이다. 이들 교주나 주해는 먼저 잡지 『문장』에 소개되고 난 후 단행본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가람이 수집하고 정리했던 국문학의 내용을 기록한 본격적이고도 대표적인 국문학 저술은 그의 말년인 1950년대에 주로 발간되었다.

그의 생전에 나온 많은 저작과 활동이 매 시기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삼관여록(三官餘錄)』은 그가 활동하고 평생의 작업으로 해왔던 국문학의 정리와 종합의 기간에 이루어진 수필과 비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2) 『삼관여록(三官餘錄)』(1954. 2.16), 「속단(速斷)」, 「미(美)와 현실(現實)」, 「시조(時調)의 연작문제(連作問題)」 4편을 제외한 13편 수록함.

이순(耳順)에 다다른 가람의 학문에 대한 사색들을 중심으로 관심과 기호를 나타내고, 그의 학문관이나 인생관이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문학자인 가람 이병기의 『삼관여록(三官餘錄)』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 후반기 문학과 인생이 종합적으로 투영된 사유 체계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가람 연구는 그의 인간적 면모와 업적³⁾이나 시조와 시조론에 대한 연구⁴⁾에서 다양한 연구의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어학 연구 관점⁵⁾,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관점⁶⁾, 현대문학의 해석학적 관점⁷⁾, 고전문학과 국문학사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⁸⁾, 서지학적 관점⁹⁾ 등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람의 문학은 시조 문학 이외의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삼관여록(三官餘錄)』은 가람의 말년 기록으로 그의 평생의 견문과 식견, 관심과 사유 체계, 학문의 방법, 문학과 비평,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시조문학에 한정되지 않은 그의 전체 학문의 특성과 범주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고는 『삼관여록(三官餘錄)』의 기록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 작품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

3)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4) 임선목, 『가람 이병기론』, 『논문집』 5집,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1.
김윤식, 『시조의 재창조와 그 한계-가람론』,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5) 안병희, 『이병기』, 『주시경학보』 4호, 탑출판사, 1989.

6) 허윤희,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상상: 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6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

전도현, 『이병기의 한글 문예운동에 관한 고찰-이념성과 심미성의 괴리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연구』, 2009.

7)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8) 리태극, 『가람 이 병기 님의 학문 세계 연구』, 『문학한글』, 1권 8호, 1994.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 6호, 2009.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학사연구』 10집, 민족문학사학회, 1997.

류준필, 『형성기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허정진, 『근세 국학과 가람 이병기의 위상』, 『애산학보』 제40집, 2014.

9)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2011.

를 보충하여 실증적이고 분석학적인 방법으로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¹⁰⁾

2. 「삼관여록(三官餘錄)」의 구성과 내용

가람은 잡지나 신문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글들을 다수 연재하였다.¹¹⁾ 가람이 발표한 연재물들은 ‘국어 문법’, ‘시조론’, ‘기행’, ‘작품평’, ‘역사 인물 전기’ 등 그 주제나 내용이 확실하다. 이에 비해 『삼관여록(三官餘錄)』에 실린 글들은 그 주제가 다소 산만하여 서로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지만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연재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람이 제목에서 사용한 ‘삼관(三官)’의 어원은 조선 중기 도암 이재(李穡, 1680-1746)가 지은 잡록집인 『삼관기(三官記)』¹²⁾에서 유래되었다. 도암 이재는 노론계 문인으로 『삼관기(三官記)』에서 그가 경험하거나 전해들은 이야기를 이관(耳官), 목관(目官), 심관(心官)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여타 야담 및 필기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¹³⁾ 조선 후기의 학자 남이목(南履穆)이 쓴 책 『삼관수록(三官隨錄)』이라는 서명도 이재(李穡)의 『삼관기(三官記)』에서 뜻을 가져온 것이며 그 내용은 『소학』·『대학』·『심경』에 고석(考釋)을 가하고,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논설을 첨가한 것이다.¹⁴⁾

10) 이에 본 연구는 1954년 2월부터 1956년 4월에 걸쳐서 발표된 『전북대학교보』에 실린 「삼관여록(三官餘錄)」을 고찰 대상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가람의 다수의 저술들을 포함할 것이다.

11) 그는 국어 문법을 「조선문법강화」(5회), 「조선어강화」(6회) 연재하였으며, 「시조와 그 연구」(9회), 「율격과 시조」(4회), 「시조의 기원과 그 형태」(5회), 「시조의 형태」(5회) 등의 시조론도 연재를 통해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한 대표 잡지 「문장」에는 거의 전 호에 걸쳐서 「한중록」(12회)과 「인현왕후전」(6회)을 연재하였다. 기행문도 「가을의 경주를 차저」(4회), 「남위례성을 차즈며」(4회), 「사자성을 찾는 길에」(5회), 「해산유기」(9회) 등 다수 있다. 기간오르나 분량이 가장 긴 연재물은 역사인물의 전기인 「어린이 역사」(82회)이다.

12) 유해자, 「고전수필 <삼관기>考」, 『동악어문논집』, 제23집, 1988, 209-212면.

13) 조용희, 「『삼관기』이본들에 나타난 작품 구성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3호, 2010, 36면.

14)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북대학교보』에 실린 「삼관여록(三官餘錄)」의 목록〉

순	제목	날짜	발표자	발행지	글의종류
1	삼관여록	1954. 2. 16.	가람	전북대학교보	잡고
2	삼관여록 (속단)	1954. 5. 26.	"	"	잡고
3	삼관여록 서동동요와 설화	1954. 6. 22.	"	"	잡고
4	삼관여록 정석가	1954. 7. 15.	"	"	잡고
5	삼관여록 (백련)	1954. 9. 15.	"	"	수필
6	삼관여록 풍란	1954. 10. 22.	"	"	수필
7	삼관여록 덕진호반	1954. 11. 30.	"	"	수필
8	삼관여록 촛불	1955. 1. 31.	"	"	수필
9	삼관여록 미와 현실	1955. 2. 24.	"	"	잡고
10	삼관여록 극가와 소설	1955. 3. 24.	"	"	잡고
11	삼관여록 한자 음독	1955. 5. 25.	"	"	잡고
12	삼관여록 전원의 노래	1955. 6. 22.	"	"	잡고
13	삼관여록 난초	1955. 7. 10	"	"	수필
14	삼관여록 오공죽	1955. 11. 30.	"	"	수필
15	삼관여록 구·울·우·송의 교분	1956. 2. 5.	"	"	수필
16	삼관여록 시조의 연작문제	1956. 4. 30.	"	"	잡고

※()속 부제는 본래 없었으나 나중에 임의로 붙여진 것임

위 목록은 『전북대학교보』에 실린 「삼관여록(三官餘錄)」의 전체 목록이다. 「삼관여록(三官餘錄)」이라는 제목으로 16편의 글을 연계한 것은 ‘삼관(三官)’과 ‘여록(餘錄)’이란 의미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삼관여록(三官餘錄)」이라는 제목의 ‘삼관(三官)’은 귀(耳)·눈(目)·마음(心)의 세 기관을 즉 ‘이관(耳管)’, ‘목관(目官)’, ‘심관(心管)’을 뜻하는 의미에서 온 것이고 ‘여록(餘錄)’은 ‘빠진 나머지 기록’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삼관여록(三官餘錄)」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어놓은 글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가람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실과 직접 보고 들은 체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한 글이라 이해할 수 있다.

「삼관여록(三官餘錄)」은 국문학자인 가람이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작품이나 대상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비평과 감상을 쓴 글이 대부분이나 그 일련의 연재의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 그가 평생 담아왔던 학문이나 작

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연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가람은 제 1호에 붙인 『삼관여록(三官餘錄)』의 제목을 제 2호와 같은 제목으로 계속 같게 하니 구별이 되지 않아 제 3호부터는 부제를 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글들에 붙여진 생소한 『삼관여록(三官餘錄)』이라는 제목보다는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그에 붙은 부제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다. 후에 제 2호의 제목은 ‘속단(速斷)’이라는 부제가 붙여졌다. 제 5호의 부제는 ‘백련’이라고 붙였는데 이는 『가람문선』에 실으면서 동아일보(1956. 6. 30.)에 발표된 ‘백련’으로 혼동한 것이다.¹⁵⁾¹⁶⁾ 이 작품이 이미 일반에 ‘백련’으로 알려져 있어 여기에 부제를 ‘백련’으로 붙인다.

『삼관여록(三官餘錄)』 16편의 내용으로 볼 때 ‘백련’, ‘풍란’, ‘난초’는 화초를 소재로 한 그의 대표적인 수필 작품들이다. 어릴 적 추억이 서린 백련을 구해 가꾸어 꽃을 피워내는 이야기와 오랜 세월 난 가꾸기에 정성을 다하며 그를 즐기고 향유하는 심정을 담았다.

『촛불』은 정전(停電)이 잦은 당시 현실적 상황에서 촛불에 대한 믿음과 예찬을 담은 글이며, 『오공즙』은 유명한 예언자 토정 이지함이 오공즙을 먹고 죽은 일화를 재치 있게 소개한 글이다. 『덕진호반(德津湖畔)』은 가람이 재직 한 전북대학교에 위치한 ‘덕진호반’의 풍광과 유래를 소개하고, 『구·울·우·송(龜·栗·牛·松)의 교분(交分)』은 조선 선조 때 송구봉, 이을곡, 성우계, 정송강 네 명현들의 이름을 가운데 한자씩 따서 붙인 것이며 그들의 교분을 내용으로 한다.

가람은 시조와 기행문을 잡지나 신문에 일찍부터 발표하고 잡문도 발표를 많이 했지만 본격적인 수필이라 할 수 있는 작품 『서호의 밤』(『문장』 1권 7호, 1939), 『서권기』(『문장』 1권 11호, 1939), 『산유화』(『대학신문』, 1947. 7. 20) 등이며 1950년대 주로 발표된 수필 작품들은 주로 『전북일보』, 『삼남일보』, 『전북대학교보』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삼관여록(三官餘錄)』으로 연재한 ‘백련’, ‘풍란’, ‘덕진호반’, ‘촛불’, ‘오공즙’, ‘구·울·우·송의 교분’, ‘난

15)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188면.

16) 앞의 책, 196면. 더불어 ‘난초’의 출전 ‘『원광문화』, 1954, 10’을 ‘『전북대학교보』, 1955. 7. 10’으로 바로 잡는다.

초』 7편의 수필은 비교적 단 기간에 쓴 작품으로 그의 수필 가운데 큰 비중을 지니는 작품들이다.¹⁷⁾

『삼관여록(三官餘錄)』(1954. 2.16), 『속단(速斷)』, 『서동동요(薯童童謠)와 설화(說話)』, 『정석가(鄭石歌)』, 『전원(田園)의 노래』 5편은 고전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을 내용으로 한 작품과 인물, 일화들이 소개된다. 『삼관여록』(1954. 2. 16)과 『속단』(1954. 5. 26), 『전원의 노래』는 고전, 한시, 민요 등을 다양한 작품을 예로 들면서 가람의 문학작품 비평의 기준과 방법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의 국문학 연구는 독창적이면서도 탁월한 해독과 해석이 돋보이는 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실린 『서동동요와 설화』, 『정석가』, 『극가(劇歌)와 소설(小說)』 등이다. 『미(美)와 현실(現實)』, 『한자 음독漢字 音讀』, 『시조(時調)의 연작문제(連作問題)』 4편의 글은 문학 이론과 장르 구분 등 주로 이론과 주장을 편 글이다.

3. 고증학적 실증주의 연구 방법과 독창적 이론

『삼관여록(三官餘錄)』에 실린 그가 보고 듣고 체험한 내용들은 주로 고전 작품과 기록에서 가져왔다. 1호 『삼관여록』(1954. 2. 16)의 내용은 늙은 신랑과 결혼한 신부가 신랑에게 나이를 묻는 일화로 시작한다. 23세 신부에게 “50년 전 23세”으로 대답하는 73세 노신랑의 언어유희를 시작으로 가람이 옛 고전에서 해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가 한 단면을 보여준다. 설총의 화왕계에서 ‘맹자가 불우하고 풍당랑(唐郎)이 숨어 늙었다.’는 대목을 보고 ‘풍당랑(唐郎)’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문헌을 들어 고증하면서 그가 두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조~ 숙종때 시인 김백곡이 지었다는 시구를 들어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 실린 일련의 기술을 통하여 가람은 글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해독하고 해설을 붙이며 인물과 작품의 내용을 밝혀낸

17) 『가람문선』에 실린 수필은 총15편이며 그 중 7편이 『삼관여록』에 실린 작품이다.

다. 가람의 연구는 그의 해박한 한문 실력과 박람회(博覽強記)에서 비롯하는데 문헌을 중심으로 고증하고 해석하는 실증주의적 방법과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가람은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금석학의 대가 추사 김정희의 학문적 연구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사(秋史)의 글씨를 배우는 이가 추사의 독서법은 배우지 않고 다만 그 체법(體法)을 익히다가 만다.”고 경계하고¹⁸⁾ 경사자서(經史自書)와 금석오천권(金石五千卷)을 읽은 추사의 서권기를 실천하는 가람은 추사의 학문적 연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많은 고서를 수집하고 동·서양의 서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토대로 옛 문헌과 작품들의 뜻을 밝혀내는 가람에게 추사의 학풍을 이어받은 우리의 전통 실학의 마지막 계승자라는 의미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람은 『삼관여록』(1954. 2. 16)에서 ‘문헌’에 의해 글자 하나하나 고증하는 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다음 『삼관여록』(1954. 5. 26)에서 더욱 심화시킨다. 즉 문헌의 기록에 의해 고증할지라도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속단’이라는 부제는 “한때 한두 말만 듣고 그가 어떠하다 판단함은 너무 가볍다 않을 수 없다. 적어두고 보아야겠다.”는 서두의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학문은 “하나의 글귀로 전체를 비평한다고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두보와 도연명, 죽림칠현 시인들의 평가와 엇갈린 운명을 거론하면서 과학자와 도학자, 시인, 예술가의 차이를 논한다.

과학자는 眞假 도학자는 美惡을 표명한다면 詩人즉 예술가는 好惡로 하여 인생을 비평하고 그의 독특한 인생관 우주관 이상들을 말하는 바이다. 그리고 과학자 도학자와는 다른 자유 방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부랑자나 정신병자로 돌릴 것이 아니다. 한 작가를 이루었다면 그의 觀과 理想이 또 하나의 세계를 지녔다. 그 작품에는 변화천만이 천태만상이 조화정제 통일되어 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그러하다

— 『삼관여록』(1954. 5. 16) 중에서

이와 같이 그는 과학자나 도학자와는 다른 자유분방한 시인, 예술가들의

18) 이병기, 『서권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3, 200면.

특성을 해명한다. 가람은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 속에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고 천태만상이 조화정제 통일되어 있는 작자의 관과 이상이 하나의 세계를 지닌다”는 점을 역설한다.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한 부분이나 한 책만 보고 속단하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정밀히 조사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연구 방법은 한문과 국어 연구를 병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때엔 여러 책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고등국어의 「冷山の魂」이란 문구를 사원(辭源)을 찾아보아도 없다 하나 나는 사원의 冷山條에서 「金人流遞洪造於冷山」이란 걸보고 洪造條를 다시 찾아 그 문자의 뜻을 알았다. 이상 俯仰을 부양이라 함과 같은 것도 다만 한 군데나 한 책만 보고 속단하여 그런 착오가 생긴 것이니 미심한 걸 상고함에는 두루 정밀히 조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한자 음독」 중에서

한자음 하나하나에 대한 착오를 바로 잡고자 여러 책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가람의 주장과 연구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가람의 학문은 필연적으로 ‘잡학성’을 가지게 되고 비체계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학문 내적으로는 정합적인 것일 수 있다. 이병기의 학문은 이런 관점에서는 정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¹⁹⁾ 의미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람은 국문학사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역사적으로 생성 발전하는 국문학을 동적으로 파악하려는 국문학사의 대상은 응당 상술한 국문학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자료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릇 역사라는 것은 「문헌」의 연구에 의하여서만 갱신되고 확립되는 것이다.²⁰⁾

국문학사를 동적으로 파악하려는 대상이 국문학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자

19)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9. 6호, 2009, 7면.

20) 이병기, 『국문학전사』, 1975, 7면.

료이므로 ‘문헌’의 연구를 가람은 국문학사 연구 방법으로 가장 중요시하였다. 문학사는 ‘작품’이라는 ‘문헌’을 구명함으로써만 이해된다는 논리이다. 가람의 국문학 문학작품 연구는 ‘문헌’을 구명에서 시작하여 훌륭한 고전문학 작품들을 발굴하여 소개했다. 그는 많은 고전을 책방에서 구하기도 하고 필사하였다. 작품을 원문 그대로 신기도 하고 교주 및 주해하여 소개하였다.²¹⁾

그렇게 많은 작품을 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의 작업들이 자료의 제시에 그쳤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가람은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을 해독하고 해설하여 새로운 용어나 해석, 독창성인 학설을 내놓았으며, 문학사로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관여록(三官餘錄)』에 실린 「서동동요의 설화」, 「정석가」, 「시조의 연작문제」, 「극가와 소설」, 「미와 현실」 등이다. 그뿐 아니라 ‘시조의 혁신’과 ‘3장 8구의 시조의 형태’, ‘연작시조론’와 ‘격조론’, ‘2분법 장르 구분’과 ‘극가의 설정’, ‘문체의 구분’, ‘내간체’, ‘별곡체’, ‘서왕가 발굴’, ‘시조의 형태’, ‘국한문학’, ‘가사체 문학’, ‘서지학 정립’ 등 새로운 용어와 이론은 가람이 해낸 작업들이다.²²⁾

『삼관여록(三官餘錄)』에 수록된 「서동동요의 설화」에서 보여주는 노래의 형식과 어의와 설화의 해석, 「정석가」에서 보여주는 ‘정석(鄭石)’의 의미와 작품 해석 등은 고전 문학 작품들을 가람이 문헌에 의해 실증적으로 해석·규명하는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다.

『삼관여록(三官餘錄)』에 수록된 「극가(劇歌)와 소설(小說)」이 보여주는 국문학사에 남긴 장르 구분 이론이나 「시조의 연작문제」 등 그의 이론은 역사적 고찰과 정립에 있고 국문학의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이 되었다. 가람은 「시조는 혁신하자」²³⁾ (『동아일보』, 1932. 1. 23-2. 4)에서 ‘연작(連作)을 쓰자’고 주장하였다. 「시조(時調)의 연작문제(連作問題)」는 그 연장선에서 계속 반복

21) 『지나명시선1』(한성도서주식회사, 1944.), 『시조 전집』(중앙인서관, 1945.), 『인현왕후전』(박문출판사, 1946.), 『한중록』(백양당, 1947.), 『역대시조선』(박문서관, 1940.), 『근조내간선』(국제문화관, 1948.), 『요로원야화기 외 11편』(을유문화사, 1948.), 『의유당일기』(백양당, 1948.), 『가루지기타령』(국제문화관, 1949.), 『어우야담』(국제문화관, 1949.), 『조선역대여류문집』(을유문화사, 1950.), 『계축일기』(단국대학교국어문학연구회, 1956.), 『현대시조선총』(새글사간, 1958.), 『명시조감상』(박영사, 1958.) 등.

22) 리태극, 「가람 이 병기 님의 학문 세계 연구」, 『문학한글』, 1권 8호, 1994, 14-27면.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149-157면.

23) 이병기, 「시조는 혁신하자」,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327면.

하는 내용의 글이다. 그가 주장한 ‘연작시조론’은 논쟁²⁴⁾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연작시조는 현대시조의 대세가 되었고, 가람이 고심했던 시조문학의 방향과 과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²⁵⁾

가람의 비평과 해석, 이론 등 이러한 내용들은 『국문학개설』²⁶⁾, 『시조의 개설과 창작』(현대출판사, 1957), 『국문학전사』(1957, 신구문화사), 『국문학개론』(1961, 일지사)으로 출간하였다. 이 저서들은 오랜 기간 수집한 문헌자료와 그 자료들에 대한 문헌학적 고증과 실증주의 학문적 연구 방법에 의해 정리된 결과임은 서지학적으로도 입증하고 있다.²⁷⁾ 그의 이론은 엄밀하고 독창적이어서 후학들에게 새로운 영감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의 이론의 한 줄기만으로도 일가를 이루는 학자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고전문학의 해석과 비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학’의 관계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우리 문학의 미학 이론을 수립한 학자이기도 하다. 가람의 문학적 특성을 민족주의적 이념성과 미학적 심미성이라 보는 관점에서²⁸⁾ 가람이 추구하는 심미주의적 미의 개념을 『미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미(美)라 하는 것은 감각에 쾌감을 일으키는 것’이자 또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가람은 『미와 현실』 본문에서 통일성이 없는 김상용의 시조는 거짓이지만 통일성이 있는 이몽규의 시조는 진실하다고 설명하고, 미는 분석적이 아니고 종합적이며 사실 그대로보다는 개성을 발휘하여 독창성이 있어야함을 주장한다. 가람은 그런 관점에서 황진이의 시조를 극찬한다. 황진이에 대한 평가는 그를 스승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²⁹⁾ 이러한 비평의 기준으로 가람은 도학자인 퇴계의 시조 내용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며, 문학적

24) 김윤식, 『시조의 재창조와 그 한계-가람론』,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221-223면.

25) 신용순 『현대시조의 정체성 문제』, 『시조학논총』, 제37집, 2012, 41-42면.

26) 전북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등사판으로 인쇄한 책으로 후에 『국문학개론』(일지사, 1961)으로 펴냄.

27) 이민희,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제40집, 2014, 258면.

28) 허윤희,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상상: 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6집, 민족문학사학회, 2004, 287-288면.

전도현, 『이병기의 한글 문예운동에 관한 고찰-이념성과 심미성의 괴리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 연구』, 2009114-117면.

29) 이병기, 『황진이의 시조 일수가 지침』, 『동아일보』, 1938. 1. 29.

인 평가에서 추상성이나 관념성을 배제한다. 「전원의 노래」는 이러한 특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오려논 물실어 두고 면화 밭 매오리다.
울밀에 외를 따고 보리 능거 점심하고
뒷집에 술이 익거든 의자일망정 내어라

이 시조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려(早稻) 논에는 물실어두고 목화밭을 매겠는데 외 따다 찬을 하고 보리로 점심을 짓게 하고 뒷집 술을 외상으로 가져오라 함은 농촌의 풍정(風情)을 잘 그려낸 것이다. 불같은 별에 살을 태우고 비지땀을 빠치고 나서 허술한 벅속에 보리밥도 보리밥이려니와 툇툇한 막걸리라도 몇 사발 아니 기울르고는 흥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노래는 알뜰한 한국정조(韓國情調)다. 한시(漢詩) 한문(漢文)의 그것을 모방치 않으면 따다 쓰던 그런 케케한 노래에 비하면 이런 건 정말 우리 문학으로서 귀여운 작품이다.

— 「전원의 노래」 중에서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일에서는 일의 절차를 가려서 해 나가야 하지만 시나 문학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재료를 골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오래 전 부여 시대부터 농업이 발달하여온 우리의 전원생활은 대자연과 융화되어 인생과 자연을 항상 찬미하여 춤추고 노래해온 바 우리의 민요가 도연명의 시에 미치지 못할 바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가람은 우리 민요나 시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흙에서 일하면서 흥이 일어나면 부르는 노래들에 대한 진정함을 높이 평가한다. 「전원의 노래」를 바라보는 그의 문학 감상의 기준과 평가가 보인다.

4. 겸손한 학문의 자세와 삶이 놓이는 자리

「오공죽」의 ‘오공(蜈蚣)’이란 지네를 말하는데 가람은 유명한 예인자 토정 이지함의 일화를 해학적이면서도 재치 있게 소개한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토

정 이지함을 예언자로 알고 숭배하지만 천하만사를 다 안다거나, 미리 다 안다는 이가 있을 수 없다 하고, 공자나 석가의 경우도 모르는 것이 많다 하였다.

토정비결을 지은 토정의 인물됨에 대하여 가람은 율곡의 평과 어우야담에 실린 유몽인의 평을 붙이면서 기이한 행동을 한 이지함에 대한 기록을 제시한다. 이는 오공즙을 먹고 아들을 虎食케 한 토정의 지식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람은 앎에 대해 겸손했고 지혜와 지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면서 천품(天稟)으로 당할 수 없는 지혜보다는 인공적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혜와 지식과는 다르나 지혜는 大經大禮 즉 요령을 아는 걸 이름이고, 지식을 학술부문 즉 학술을 아는 걸 이름이라면, 지식은 인공적으로도 될 수 있으나 지혜는 인공적이기보다도 天稟이었다. 이리하여 자고로 성인용결은 지혜가 많았고 현인학자에는 지식이 많았다.

- 「오공즙」 중에서

“지식과 지혜는 서로 다르다”고 전하는 가람의 주장은 지식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며 지혜는 타고난 성품에서 오는 것이라 한다. 가람은 『서권기』(『문장』 1권 2호, 1939)에서 신수와 혜능의 일화를 들면서 학문에서는 혜능보다 신수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동안 공부를 한 신수에 비해 입문 8개월에 문자도 모르는 혜능이 계송으로 범통을 이어받아 육조대사가 되었다. 그러나 가람은 “혜능이 오도(悟道)는 하였으되 학문은 신수가 닦은 것이다”고 하는 바, 신수의 학문 수양에 의미를 부여한다. 학문의 힘은 독서의 힘이고, 유미암이 제주 풍랑길에서 추사가 귀양길에서 태연할 수 있었던 힘도 독서의 힘이라 하고, 위대한 천재도 독서의 힘에서 나왔음을 역설한다.

가람의 『서권기』와 『오공즙』에 공통된 견해는 유명한 예언자 이지함이 정작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지 못하고, 공자나 부처도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적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학문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다. 한사람의 지혜나 상상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겪을 수 없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독서의 힘

요,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람은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학문을 하고 그 방법을 체득하였다.

‘난초’를 구하고 가꾸고 ‘백련’을 살려내는 일은 개인적 취미나 성향이라고 하여 이를 ‘도락주의’라 일컫는 이도 있다. 그러나 백련에 대한 추억을 잊지 않고 백련을 심어 살리고 꽃을 피워 내거나, 수십 년 동안 난을 가꾸어 내는 과정은 가람에게 학문 연구 자세와 다를 바 없는 삶의 자세이다.

이만한 백련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하다가 다시 누우쳐 백련의 성질과 그 심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았다. 연은 시궁창 같은 더러운 흙을 좋아한다고 말들을 하나 그저 그런 것이 아니다. (중략)
토관을 사다가 밑을 막고 질흙으로 한 자 반이나 채우고 그 위에 해감 흙을 예닐곱 치 돌우고 7월 12일 원광대학에서 또 삼절 이상인 뿌리 둘을 캐다 심었더니 이내 새잎이 사오십 대 솟고, 팔월 이십일엔 두 대 꽃 순이 솟아 한 대가 먼저 피었다.

- 「백련」 중에서

할아버지가 훌륭하게 키워냈던 백련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만한 백련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몇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백련을 살려내는 방법을 구하는 것은 그의 학문적 인내와 탐구심에서 오는 것이다. ‘백련’과 ‘난’은 오랜 세월동안 화초를 가꾸어온 직접적인 체험과 감상에서 오는 환희의 내면세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상이다.

난을 가꾸고 즐기는 과정은 그가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과 비유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수 있다. 난 기르는 경험을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키우는 이치나 요령이 생긴다고 한다. 병들게 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흙과 물과 별을 잘 조절해서 물줄 줄 알고, 거름 줄 줄 알고, 추위를 막아줄 줄 알아야 한다. 문헌의 한 글자 한 구절을 구명하면서 얻는 학문의 성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른 난에서 얻는 기쁨과 난의 향유³⁰⁾는 그의 내면세계에서 환희를 느끼게 하며 삶을 한층 고양시킨다.

30) 출처,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95-111면.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왕왕 새우기도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열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중략)

『看竹河須問主人』이라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 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을 화려 광활하더라도 그건 한 요리집에 불과하다. 와유·두실이 라도 고서 몇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인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풍란』 중에서

인용문은 ‘빵은 육체나 기르지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하면서 정신적 만족을 구하는 가람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난 재배와 같은 오랜 세월 가꾸고 노력해서 얻는 학문과 삶의 경지는 그에게 더없이 값진 것이다. 이러한 학문과 삶의 경지를 구가하는 가람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또한 『구·울·우·송의 교분』에도 있다.

중국의 관포지교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고구려 을파소와 안유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근조에는 선조 때 송구봉, 이율곡, 성우계, 정송강 네 명현들의 사이가 막역하여 서로 학리를 강론하거나 허물이 있으면 책선하고 못 보면 문안을 하며 선물을 보내주었다.

- 『구·울·우·송의 교분』 중에서

송구봉, 이율곡, 성우계, 정송강은 선조 때 서로 가까이 교류한 명현들로 이들의 차원 높은 학문이나 문학을 가람은 흠모한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막역한 교우들끼리 서로 학리를 강론하고, 허물을 책선하며, 문안하는 삶, 이는 학자의 행복이요 이상이다. 가람은 스스로 ‘난’과 ‘술’과 ‘제자’ 세 가지 복을 지녔다 했으며 많은 인사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가람일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사들과의 교류는 살아있는 국문학사의 기록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람은 『덕진호반』에서 호남선 철도가 전주가 아닌 김제, 정읍 쪽으로 결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풍수와 관련된 완고한 지식

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경계한다. 또한 모순된 사회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나는 이렇게 촛불을 예찬하였다. 진실로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기관도 이런 촛불처럼 되었으면 하겠다. 촛불의 사정인들 전등과 그다지 틀림이 없는 건 아니나 가축밀도살 금지령이 지엄한 이때 돈육·우육 불이가 여전히 점두에 나오며 초도 여전히 풍성하다. 금지하면 도리어 성행하는 것이 한 모순이다. 그러나 고급 우리는 모순철학에서 살고 있다.

— 촛불」 중에서

초의 원료가 되는 가축의 기름이 풍성한 것이 가축밀도살 금지와 모순되는 현실임을 간과하고 모순된 사회현상을 꼬집기도 한다. 가람은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촛불’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예찬하면서, 촛불처럼 불을 밝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5. 맺음말

가람의 후기 학문과 삶을 알 수 있는 『삼관여록(三官餘錄)』은 16편의 수필과 국문학 잡고를 기록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자료들은 그의 학문 연구의 방법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그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정리와 종합의 의미가 있으며 그의 사색과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가람은 『삼관여록(三官餘錄)』을 통하여 이(耳)·목(目)·심(心)의 ‘삼관(三官)’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체험과 삶을 기록했다. 가람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지식의 획득이며 독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겸손한 학문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와 결부된 삶의 자세도 일관된 사고로 기술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고찰함으로써 가람의 문학이 시조문학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양식의 문학에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고전문학의 소개가 단순한 자료의 제시가 아니고 문헌학적 고증에 의한 실증주의 학문의 방법에 의한 해독과 해석으로 탁견을 보여주며 독창적인 이론을 펼치고 있으며, 국문학사의 전개에

까지 우리 국문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학문적 성과를 규명할 수 있었다.

독서와 학문을 통하여 얻는 선인들의 삶과 작품, 앞 시대의 역사, 그리고 자신과 동시대의 인물과 사건들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사유체계를 통하여 그가 정립한 학문의 세계를 고찰하고 겸손한 학문의 자세와 삶이 놓인 자리를 반추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에 가람 이병기의 학문과 인생관은 한국학이나 한국 지성에 대한 사상사적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병기, 『가람시조집』, 문장사, 1939.
이병기, 『국문학개설』, 전북대학교문리과대학, 1951.
이병기, 『삼관여록(三官餘錄)』, 『전북대학교보』, 1954. 2. 16.-1956. 4. 30.
이병기·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이병기, 『시조의 개설과 창작』, 현대출판사, 1957.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61.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3.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 일기』1, 2, 신구문화사, 1974.

2. 논저

- 김윤식, 「시조의 재창조와 그 한계-가람론」,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1973.
김준영, 「가람 선생님에 대한 추억」, 『큰 가람 깊은 소리』, 신아출판사, 1997.
류준필, 「형성기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리태극, 「가람 이병기님의 학문 세계 연구」, 『문학한글』, 1권 8호, 1994.
신용순, 「현대시조의 정체성 문제」, 『시조학논총』, 제37집, 2012.
안병희, 「이병기」, 『주시경학보』 4호, 탐출판사, 1989.
유해자, 「고전수필 <삼관기>考」, 『동악어문논집』, 제23집, 1988.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민희,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제40집, 2014.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학사연구』10집, 민족문학사학회, 1997.
임선록, 「가람 이병기론」, 『논문집』 5집,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1.
전도현, 「이병기의 한글 문예운동에 관한 고찰」, 『한국근대문학 연구』, 2009.
조용희, 「『삼관기』이본들에 나타난 작품 구성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3호, 2010.

- 최승범, 「가람 선생의 생애와 학문」, 『어문연구』, 제29집 4호, 2001.
-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허경진, 「근세 국학과 가람 이병기의 위상」, 『애산학보』 제40집, 2014.
- 허윤희, 「조선어 인식과 문학어의 상상: 가람 이병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26집, 민족문화사학회, 2004.
-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9. 6, 2009, 7면.

【국문초록】

가람은 전북대학교에 재직하던 중 「삼관여록(三官餘錄)」(『전북대학교보』, 1954. 2. 16.-1956. 4. 30.)이라는 제목으로 수필과 잡록 16편을 연재하였다. 그의 생전에 이루어진 많은 저작과 활동이 때 시기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삼관여록(三官餘錄)」은 그의 국문학을 정리하고 종합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수필과 비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순(耳順)에 이른 가람의 견문과 관심과 기호들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관이나 인생관이 종합적으로 투영된 사유 체계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본 논문에서는 「삼관여록」의 구성과 특징을 살피고, 가람의 학문 연구가 문헌에 의한 고증학적 실증주의 방법임을 규명하였다. 이에 가람은 고전 문학 작품을 해독하고 해석함에 있어 독창적인 용어와 해석으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국문학사를 전개하여 우리 국문학을 풍성하게 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가람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지식의 획득을 독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겸손한 학문의 자세로 자신의 삶이 놓이는 자리를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한국의 지성인이나 지성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아쉬운 현실에서 가람 이병기의 학문과 인생관은 한국학이나 한국 지성에 대한 사상사적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가람 이병기, 수필, 잡고, 「삼관여록(三官餘錄)」, 문헌에 의한 고증학적 실증주의 연구 방법, 독창적 이론, 겸손한 학문의 자세, 삶이 놓이는 자리.

【Abstracts】

The Literature and Outlook on Life of Garam Lee Byeong-ki In 「Samkwanyeorok」

Lee. Kyeong-ae

The From 1952 when Garam served in Jeonbuk University to August 1956 when he retired, Garam had written a series of articles on essay and sixteen miscellanies named 「Samkwanyeorok」 for the University newspaper.(『Jeonbuk University Newspaper』, 1954. 2. 16.-1956. 4. 30.). It is significant that almost his main literary works about arranging and synthesizing in Korean Literature had been written during that period. Therefore, 「Samkwanyeorok」 is a very important material that showed Garam's affairs and his knowledge and literary thinking synthetically in his later years and is a material that was reflected his literary and real life as it was.

「White lotus」, 「Neofinetia falcata」, 「Candlelight」, 「Ogongjeup」, 「The shores of Deokjin lake」 and 「The friendship of Gu, Yul, U and Song」 included in 「Samkwanyeorok」 were six essays in which Garm expressed his thought about the things and the characters he had an interest. Also, 「Samkwanyeorok」(1954. 2.16), 「A hasty conclusion」, 「The children's song and tale of Seodong」, 「Jeongseokga」, and 「The song of the country」 were five works that the contents was his impression and criticism of Classical literature. 「Beauty and reality」, 「Geukga and Novel」, 「Strait reading of

Chinese character」, and 「Series problem of Sijo」 were four works in which he wrote his opinion about literary theory and genre division.

In this thesis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amkwanyeorok」 and the study on the methodology positivism way literature of Garam showed in 「Samkwanyeorok」 were reviewed and his modest academic position and position that will be held in the life.

Key words : Garam Lee Byeong-ki, Essay, 「Samkwanyeorok」, A Study on the methodology positivism way literature, Modest academic position, Position that will be held in the life.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